

한국사회의 대인신뢰구조와 그 생산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장수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대인신뢰구조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신뢰 구조의 특성을 사회조직생활의 양태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데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대진대학 사회자본 연구소가 실시한 〈사회자본기초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robit Model과 회귀분석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서술적 데이터(Descriptive data: tabulation, 그래프 등)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한국인들의 대인신뢰구조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종속변수를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신뢰’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경험적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제도가 아직도 안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조직생활참여가 대인신뢰로 쉽게 전환되는 ‘사회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인들은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하는 신뢰구조의 이중성이 발견된다. 신뢰의 이중성은 한국인들의 사회조직생활이 비공식성이 높고, 동종교배적 교제가 중심을 이루고, 조직활동의 목적이 협소한 사회참여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회조직활동 참여가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비

* 목원대 행정정보학과

해, ‘자발적 봉사’나 ‘사회기부’는 대인신뢰수준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최상위 계급이 서구사회에서 목격되는 높은 대인신뢰수준을 보여주지 못해 일반예상을 빗나갔다. 하지만 한국사회도 교육이 높아질수록, 가계수입이 늘어날수록 대인신뢰가 높아가는 일반법칙에 근접해 가고 있는 사회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

대인신뢰,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신뢰, 사회자본,
사회조직참여수준

I. 머리말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가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 미치는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여 왔다. 최근 들어 정치학자들 사이에 ‘대인신뢰’의 중요성과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Uslaner, 2002; Putnam, 2000; Warren, 1999; Inglehart, 1999; Kasse, 1999). 그리고 단지 정치학뿐만 아니라 조직이론,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이 신뢰와 불신과 관련된 이론논쟁에 뛰어 들면서 신뢰에 대한 연구는 부흥기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뢰’ 문제를 시급히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신뢰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우선적으로 1987년 새로 태어난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국제화와 열린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 사회경제적 구조와 신뢰구조의 불협화음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높은 대인신뢰이다(Almond and Verba, 1963; Putnam, 1993; Warren, 1999; Inglehart, 1999). 푸트남(Putnam, 1993)에 따르면, 높은 대인신뢰와 자발적 사회조직이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공공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행동하고 법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인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를 높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신뢰와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에서 공공의 문제가 정부에 더욱 빨리 전달되고 해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윤리의 핵심은 개인들이 정치과정에서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기꺼이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태도이다(Cigler and Joslyn, 2002).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단어들이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이다. 대인신뢰와 관용이 부족한 사회에서 타협과 협상은 어렵게 되며 정치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된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야대결, 영호남 대결 등은 우리사회 신뢰구조와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는다. 대인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정치적 반대자 혹은 문화적, 인종적 이단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높으며, 선거를 통한 권력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권력이동을 관용한다는 것은 높은 신뢰가 존재할 때 가능하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이동이 자유로워 질 때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에 기초한 전통적 결속관계의 네트워크는 파당성과 가계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내용과 이 조직들이 생산하는 신뢰의 특성이 바뀌어 져야 한다. 후쿠야마(Fukuyama, 1995)에 따르면, 유교주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사회관계는 가부장적 가계주의적 제도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배된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가족 외의 낯선 타인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에 적용하는 신뢰수준이나 예의규범이 엄격히 다르다 (Pye, 1999). 이러한 신뢰구조는 한국사회가 부르주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 결속관계의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커뮤니티 혹은 사회전체 구성원을 동시적으로 포용하는 태도나 가치가 정착될 때 근대적 시민사회에 조우하는 신뢰구조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사회의 신뢰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생성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한국사회가 이러한 신뢰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사회조직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구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신뢰와 연관된 변수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대인신뢰구조와 그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갈등과 제도적 비효율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를 해명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믿는다.

II. 기존연구의 대인신뢰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1. 신뢰의 정의, 생성원인, 그리고 신뢰의 구분

대인신뢰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정교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야마지

시(Yamagishi & Yamagishi, 1994)로 이해된다. 야마지시에 따르면, 신뢰(trust)와 확신(confidence)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확신은 개인이나 제도가 어떤 업무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반면에, 신뢰란 개인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교환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technical competence)과 상관없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좋은 의지(good will)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Yamagishi & Yamagishi, 1994: 131).

그러면 이러한 대인신뢰는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생성되는가? 신뢰는 위험을 전제로 하여 생성된다. 왜냐하면, 신뢰란 위험으로 발생하는 ‘취약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 즉 위험감수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박통희 외, 2000: 103). 모든 형태의 사회적 거래는 불가피하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개인이 호혜를 베풀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호혜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은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데 기본적인 환경이 된다(Molm 외, 2000: 1400). 몰름과 그의 동료연구자들(Molm 외, 2000)에 따르면,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협약을 통한 교환관계(Negotiated Exchange)에서 보다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상호 호혜주의적 교환관계(Reciprocal Exchanges)에서 신뢰가 생성된다. 협상(계약)을 통한 교환관계에서 행위자들이 분명한 협상과정을 통하여 엄격한 교환조건에 동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환관계를 갖는다. 이 경우에 교환에서 얻게 되는 이득은 기본적으로 양자가 나누어 가지며 일방이 독점하지 못하나 양자 모두 교환을 통하여 이득이 발생한다(Molm 외, 2000: 1399). 그리고 엄격한 계약 조건들이 교환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대부분 제거시켜 준다. 이러한 경우,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대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따라서 협약을 통한 교환관계를 통해서는 쉽게 신뢰가 생겨나지 않는다. 상대방의 성벽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Molm 외, 2000: 1402).

반면에 상호 호혜주의의 교환관계에서는 행위자는 보상과 관계없이 그리고 협상 혹은 계약관계 없이 교환관계에 참여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에게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다(Molm 외, 2000: 1399–1400). 따라서 상호 호혜주의적 교환은 높은 위험성을 수반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거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협회, 클럽, 동호회, 모임 등등의 사회조직에서는 상호 호혜주의의 교환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시장에서의 거래관계는 협약을 통한 거래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자본 연구가들은 상호 호혜주의적 교환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상호 호혜주의적 관계라고 하여 모두 신뢰를 생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상호간의 높은 결속관계를 가진 네트워크(Network of Committed Relations)¹⁾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1) 결속관계(committed relations)란 무엇인가? ① 긴밀한 면대면 관계가 반복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개인들 사이에 특정 관계 중심적 자산(relation-specific assets)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② 쌍방간의 결속수준이 높아서 상호간의 매력과 충성심이 높은 상태로 거의 교환관계 당사자들이 거래관계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이며 ③ 결속관계가 높아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준이 높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속관계 양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근대사회에서 마저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 마을 사회에서 긴밀하게 결속화된 커뮤니티를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었다(Yamagishi 외, 1994: 136–137).

아주 작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호주의적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의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며 확인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도 결속관계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 이롭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란 상대방의 의도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가 보장해 주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좋은 의사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대평가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믿음을 주는 행동을 선택할 때 신뢰가 발생한다(Yamagishi 외, 1994: 135-136).

야마지시(Yamagishi 외, 1994: 132)에 따르면, 일본사회는 상호간의 깊은 결속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확인한 상태에서 생겨난 ‘확신’(Assurance)이 주종을 이루며, 미국의 경우에는 깊은 결속관계 없이 얇은 개입(thin engagement)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생성되는 일반 신뢰(generalized trust)가 높은 사회이다. 깊은 결속을 통해서 사회관계의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사회 이전의 모든 사회에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야마지시(Yamagishi 외, 1994)의 일본과 미국사회 신뢰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는 지금부터 논의하고자 하는 정치학자들의 신뢰구분과 논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접착자본(bonding capital)과 연결자본(bridging capital)으로 나눈다. 접착자본이란 면대면(fact-to-face)의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이다(Putnam, 1993: 39). 접착자본은 기본적으로 연줄과 내집단 편향의 신뢰성향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서는 내부적 결속관계가 높으며 이 결속관계는 사회적 범주화와 그를 통한 준거집단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에

는 내부집단(in-group)과 외부집단(out-group)을 강하게 구분하게 된다 (Putnam, 2000: 22-24). 즉, 외부집단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며, 내부집단에 대하여는 자기 사람 봐주기 같은 파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파당성은 공정한 게임 룰의 파괴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그룹들 사이의 분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접착자본과 달리, 연결자본은 그룹을 뛰어 넘어선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다. 일반 신뢰는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며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0: 517-572)는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 혹은 도덕적 신뢰(Moral Trust)로 표현하였는데, 유스래이너는 푸트남과 달리 일반신뢰의 도덕주의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신뢰야 말로 잘 모르는 타인들에 대한 믿음이다. 도덕적 신뢰는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도록 만들며, 그리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따라서 도덕적 신뢰야 말로 건강한 시민社会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유스래이너는 자원봉사와 사회기부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도덕적 신뢰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른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믿음 없이는 자원봉사나 사회기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가들, 특히 정치학자들(Putnam, 1993, 2000; Uslaner, 2003, 2000; Stolle, 2001, 1998; Williams, 1988; Brehm 외, 1997)은, 신뢰를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특정신뢰와 일반신뢰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일반신뢰란 면대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 시민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그리고 전체 사회통합과 민주정치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신뢰야 말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 요소이다. 특정신뢰란 개인적으로 면대면 관계가 있

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들의 정보에 기초하여 생겨난, 밀하자면 지식기초적 신뢰(knowledge-based trust)이다. 특정신뢰가 지배적인 양식으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사회갈등과 불협화음이 목격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한 사회통합은 아주 어렵게 된다. 특정신뢰가 외부집단에 배타적으로 흐를 경우, 파당성과 공정한 게임 룰의 파괴 등으로 인해 전체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2. 사회조직활동의 참여가 대인신뢰를 생성하는가?

푸트남(Putnam, 1993)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Voluntary Civic Engagement)가 신뢰, 상호 호혜주의 원칙, 혹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 태도를 생산하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푸트남이나 후쿠야마(Fukuyama, 1995)와 같은 정치학자들은 대인신뢰를 사회적 네트워크에 개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회심리학적 산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클럽, 협회, 동호회, 혹은 모임 등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면대면 접촉을 빈번히 가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는 사회화 학습과정을 경험한다(Brehm 외, 1997: 1000). 즉 결사체 참여를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들의 견해와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타인과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보익스와 파스너(Boix & Posner, 1996)에 따르면, 특정 사회단체 혹은 클럽 내부 멤버들 사이의 신뢰의 발전과 협조적 경험은 사회전체 구성원들로 일반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셜리반과 트랜슈(Sullivan & Transur, 1999: 648) 역시 이러한 사회화를 지지한다.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체제와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으로 전환되듯이, 개인이 결사체 활동을 통

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경우 그리고 기꺼이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러한 경험은 일반인에 대한 좋은 감정과 신뢰로 전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일반신뢰 생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화 이론’(Socialization of Generalized Trust through Civic Engagement)은, 개인들의 면대면 접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신뢰가 어떻게 일반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는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유스래이너(Uslaner 외, 2003; Uslaner, 2000)는 개인들의 자발적 사회단체 혹은 클럽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개인들의 낯선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인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단체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주장 역시 경험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인신뢰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원인도 결과도 아니다. 대부분의 모임, 단체, 클럽, 협회 등은 자기들과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이며, 따라서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보편적 신뢰는 특정한 종류의 시민 참여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와 사회기부와 같은 행위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없어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행위들이다. 동호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모임들이 비슷한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혹은 서로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모임인 반면에, 자원봉사와 사회기부는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때문에 자원봉사와 사회기부는 보편적 대인신뢰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Uslaner, 2000: 576-581). 다시 말하자면, 대인신뢰와 모든 형태의 결사체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고, 단지 대인신뢰가 특정한 형태의 사회참여에 대하여는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스톨(Stolle, 1998)의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대인신뢰를 생산하는 독립변수라는 주장이나 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의 대인신뢰수준이 개인들의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수준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조직이 신뢰를 생산하기 보다는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조직참여가 신뢰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본축출 편견’(Selection Bias)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스톨(Stolle,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조직에 참가한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사회조직의 회원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활동할 경우 이것 이 대인신뢰에 주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회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대인신뢰에 대한 첨삭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기초하여 스톨은 다양한 사회조직에의 참여와 참여기간이 일반신뢰 축척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 짓고 있다(Stolle, 1998: 521). 단지, 대인신뢰 수준을 높은 사람들이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조직들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자면, 대인신뢰가 높은 개인들이 다양성이 높은 사회조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대인신뢰가 독립변수이고 사회참여가 종속변수이다. 스톨(Stolle, 2001)은 대인신뢰를 높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들이 참여할 사회조직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을 정리한다면, 자발적 결사체와 대인신뢰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푸트남(Putnam, 1993, 1995)이나 콜먼(Coleman, 1990)과 같이 결사체 참여를 독립변수로 대인신뢰를 종속변수로 이해하는 경향, 둘째는 스톨(Stolle, 2001, 1998)이나 유스래이너(Uslaner, 2000)와 같이 대인신뢰와 사회참여 사이에

는 일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대인신뢰가 독립변수로서 특정 한 형태의 사회조직 참여를 설명한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인 신뢰와 결사체 참여 사이에는 상호주의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Brehm and Rahn, 1997). 그러나 본 연구는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사회참여와 대인신뢰 사이의 인과관계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회조직과 대인신뢰가 상관관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를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이론들 중에서 특정한 형태의 사회조직 참여와 대인신뢰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조직 형태와 대인신뢰구조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회·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일반신뢰의 생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직 형태 혹은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몰름과 동료연구자들(Molm 외, 2000)의 주장, 즉 “협약적 관계(Negotiated Exchanges)에서 보다는 상호호혜주의적 사회조직관계(Reciprocal Exchanges)에서 대인신뢰가 생성된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가들이 이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모든 사회조직들이 상호호혜주의적 원칙을 강하게 갖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수직적 조직이기 보다는 수평적 조직이어야 한다. 지도자 중심적 조직인 수직적 조직에서는 교환의

비대칭적 성격 때문에, 수평적 관계에서 만큼의 상호주의적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파트너 사이에 신뢰가 축척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수직적 관계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수평적 관계에서 교환되는 정보만큼 신뢰하기 어렵다(Putnam, 1993: 174). 그리고 수직적 관계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조직으로 교환의 균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 경우에 교환을 통한 신뢰의 축척이 어렵게 된다(Molm 외, 2000: 1406-1409). 예를 들면, 주인-대리인(patron-client) 관계에서 상호주의나 호혜주의와 같은 경험은 발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주인에 대하여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적극인 개입이나 자발적 책임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Gambetta, 1988).

일반신뢰를 생성하기 위한, 두 번째로 중요한 조직형태의 특성은, 그 조직이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Inclusiveness)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혹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횡단하여 참여(cross-cutting ties)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옥과 동료연구자들(Oak 외, 1998)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사회조직이 보편적 신뢰를 생성시키는 데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으며, 자발적 결사체가 다양한 사회계급, 인종, 혹은 성(sex)을 포함하고 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다양성(Membership Diversity)이 높을 때 사회자본생성에 대한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사회화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Oak 외, 1998: 48-49). 이들에 따르면, 높은 다양성을 갖는 조직일수록 사회전반에 걸친 이슈를 다루는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게 일어나며 이러한 정치참여는 곧 폭 넓은 대인신뢰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Oak 외, 1998: 50). 반면에 비슷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 동종교배적 사회조직(Homogeneous Associations)에 참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킬 뿐, 일반사람들에 대한 사회학습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일반신뢰생성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팍스턴(Paxton, 2002)은 개인들이 동종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일반신뢰생성과 연관 지웠다. 동종의 모임, 단체, 클럽활동이 지역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중첩(Overlapping)되어 나타날 때 신뢰의 협소성은 강화되고 사회는 분절되게 된다. 반면에 다양한 사회그룹 사이의 횡적 연결(Crossing Ties)이 존재할 때 전체사회 차원에서의 신뢰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사회자본이 구축된다(Paxton, 1999: 101). 팍스턴의 이러한 견해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에 따르면, 유사한 사회그룹내의 중첩연결은 강한 내부적 결속을 가져온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그룹을 뛰어 넘는 얇은 결속이 야 말로 보편적 대인신뢰를 생산한다. 그라노베터에게는 개인들의 친숙한 면대면 결속이 보편적 신뢰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글리와 자슬린(Cigler & Joslyn, 2002)의 주장 역시 팍스턴(Paxton, 2002)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들에 의하면,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대인신뢰 혹은 정치적 관용에는 강한 정의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동종의 그룹과 개인들이 중복되어 교환되는 단체들에 대한 참여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단체, 조직, 그리고 협회에 참여하는 개인일 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가질 수 있으며 대인신뢰의 폭도 그만큼 넓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비슷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혹은 동일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중복하여 교차하게 된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서클 밖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더욱 단단히

굳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외부집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완고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체사회를 위해서 유해한 것이 될 것이다 (Cigler & Joslyn, 2002: 9).

대인신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중요한 변수는 자발적 결사체가 공식적인 관계나 비공식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식적인 관계란 혈연, 지연과 같은 일차적인 관계에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이차적 사회관계에 근거한 조직을 의미한다. 종족, 가족, 부족, 그리고 혈연을 중심으로 확장된 개념의 사회단체들은 구성원의 협소함과 배타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통해 형성됨으로 인해 전체사회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일차적 관계에 의거한 조직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뉴튼(Newton, 1999)은 ‘협소한 신뢰’(Thick Trust)라고 불렀다. 이에 비해 공식적이고 이차적인 사회단체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자본은 보다 보편적 인간신뢰를 포함하는데 이를 뉴튼은 ‘얇은 신뢰’(Thin Trust)라고 명명했다. 협소한 신뢰는 그 사회단체 내부에서 이탈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할지 모르나, 그 배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내부적 통제나 전체사회에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Newton, 1999: 14-16).

네 번째로, 대인신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직특성은 ‘조직활동의 목적’이 포함된다. 사회조직에의 참여를 통하여 개인들이 타인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사회화 과정이라면, 개별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가는 조직원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전통적 주류 교회들인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 교회 등의 종교적 교의가 보편적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해, 신교내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를 주창하는 교회들의 기독주의 일변도의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범주의 커뮤니티

에 개입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교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신앙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불신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교리적 경향성이기도 하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1)는 미국사회에서 근본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주류교파의 쇠퇴를 미국 대인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푸트남(Putnam, 2000)의 미국 교회에 대한 연구 역시 유스래이너(Uslaner, 2001)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기적 교회 출석자들이 일반 사람들 보다 사회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대인신뢰수준에 있어서 확실히 앞서 있지만, 근본주의 교회참석자들의 경우, 비교회참석자들에 비해 사회기부와 자원봉사에 덜 적극적이다. 푸트남(Putnam, 2000: 77-79)에 따르면, 근본주의 교회의 목적은 복음주의이며 이러한 협소한 활동목적으로 인해 교회중심적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커뮤니티 참여를 방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참석이 시민적 참여로 전환되기 어렵다. 한국교회가 아직 까지도 복음주의 중심적 활동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교회참석자들의 사회자본형성에 기여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여진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특성과 조직목적이 대인신뢰구조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안하이어와 캔들(Anheier & Kendall, 2002)에 따르면, 자발적 결사체 멤버십과 대인신뢰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과 사회구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참여, 사회적 개입이 현존하는 사회질서와 정치시스템을 기본적인 가치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강화할 때, 사회참여가 대인신뢰로 전이된다. 만약, 사회참여가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이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

지 못할 때, 사회조직 참여수준이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Anheier and Kendall, 2002: 355).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나 벨라우스 같은 국가들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참여수준과 대인신뢰 사이에 어떤 관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나이지리아, 그리고 보스니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이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무 의미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정치시스템이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적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교제생활이 대인신뢰로 귀결될 수 없다(Anheier and Kendall, 2002). 사회가 신뢰할 만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각종 사회조직에의 참여가 대인신뢰를 형성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구조와 정치시스템과 같은 거시적 요소들이 대인신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²⁾

안하이어와 캔들(Anheier & Kendall, 2002) 외에도, 제도적 요소와 보편적 대인신뢰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스톨(Stolle, 1998)이나 잉글하트(Inglehart, 1999)에 따르면, 높은 대인신뢰를 갖는 사회들 대부분이 민주주의 제도가 오랫동안 안정화된 사회이며,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수준에서 사람들 사이에 인지되는 사회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이 민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대인신뢰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스래이너(Uslaner, 2001)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포괄적이고 화합주의적 복지제도가 잘 갖추

2) 권위주의 사회 혹은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는 대인신뢰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 수준의 상관관계는 아주 약하게 나타나며,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장수찬(2002b)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어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에서 높은 대인신뢰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1)는 특히 제도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대인신뢰는 높아질 수 없으며, 미국사회의 대인신뢰 하락은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보편적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의 특성 혹은 조직활동의 목표나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사회조직 형태가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이어야 하며, ② 개별조직이 인종적, 문화적, 계급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혹은 개인들이 다양한 조직에 획단하여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사회조직들이 비공식적 특성을 가지기 보다는 공식성을 갖는 이차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④ 조직의 활동목적이 회원중심적 이해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사회조직활동이 높은 대인신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활동이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때,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람들은 정치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발전시켜 보았다.

가설 I: 한국사회처럼 민주주의제도가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조직활동수준은 대인신뢰수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 II: 사회조직의 형태별로 대인신뢰수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수직적, 비공식적, 그리고 중첩연결이 많은 협연, 학연, 지역에 기초한 조직들(동창회, 계모임, 향우회,

종친회)에 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대인신뢰수준은 신사회조직 참여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III: 한국인들은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성 때문에 집단별 신뢰수준에 높은 편차를 보인다.

가설 IV: 대인신뢰수준을 결정짓는 변수는 개인의 사회참여수준이 아니라 사회참여의 다양성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가설 V: 사회참여수준이 개인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신뢰수준은 특정형태의 사회참여, 즉 사회기부나 자발적 봉사와 관련을 갖고 있다.

가설 VI: 서구유럽이나 북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가?

III. 경험적 분석

1. 데이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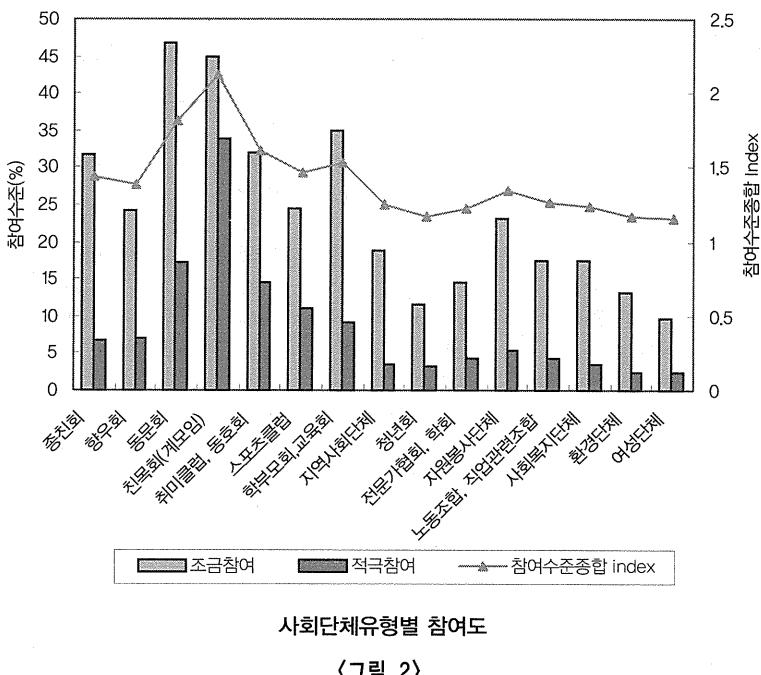
사회자본기초조사(대진대학교 사회자본연구소)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14개 시·도 별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조사방식은 대도시, 중소농업집적도시, 그리고 전통마을을 판단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만 5,000명이었으며 이중 응답자는 7,393명이었다. 그러나 분실테이터를 가려낸 다음 경험적 분석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관찰자 수는 분석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무작위 표본축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생기는 데이터 편견은 자료분석과정에서 전국 인구조사와 대비하여 비중을 적용시킴으로써 데이터 편견을 바로잡았다.

국인들이 낯선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나 조직에 속해 있는 이웃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수준이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사회집단 별 신뢰도를 조사자들의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종합신뢰도 지표를 통하여 알아보면, <그림 1>의 막대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인의 신뢰구조가 내부집단과 외부집단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본 연구가 한국 사회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신뢰구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여하튼 유럽국 가나 북미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신뢰구조가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분명히 가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신뢰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 다.

한국인들의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수준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나타 났다. 응답자의 79%가 계모임 등의 친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64%가 동문회 활동을, 46.7%가 동호회 등의 취미클럽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단체 (15.5%)와 여성단체(12.1%)에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에서 실선그래프를 참조할 것). <그림 2>를 좀더 자세히 읽어 보면, 계모임과 같은 친목계에 34.6%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창회에는 17.2%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극적 참여자 비율은 친목회, 동문회, 취미클럽, 스포츠클럽, 그리고 학부모 회 순으로 나타났고, 조금 참여자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동문회, 친목회,

를 기록했다.



사회단체유형별 참여도

〈그림 2〉

학부모회, 취미클럽, 그리고 종친회 순으로 나타났다. 향우회, 종친회 등의 지역, 협연에 기초한 조직들이 점차 한국사회에서 비중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연에 기초한 동창회나 계모임과 같은 전통적 결속관계가 한국사회의 씨줄과 날줄이 되는 교제생활로 나타났다.

3. 사회조직생활 형태와 신뢰구조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지금부터 앞에서 논의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의 사회조직생활 형태와 신뢰구조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여 보자.

우선적으로 개인들의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수준을 어떤 변수들이

〈표 2〉 일반신뢰를 종속 변수로 한 Probit Model

변수	dF/dx	Z	p> z
성	-.0191762	1.41	0.158
나이	-.0009992	-0.94	0.347
교육수준2(중졸)	-.0043049	-0.09	0.930
교육수준3(고졸)	.018138	0.40	0.691
교육수준4(전문대졸)	.0272478	0.56	0.573
교육수준5(4년대 졸)	.102493	2.26	0.024
교육수준6(대학원졸)	.0850048	1.74	0.082
수입2(50~100만)	.0558608	1.14	0.253
수입3(100~150만)	.1048794	2.34	0.019
수입4(150~200만)	.1450369	3.32	0.001
수입5(200~300만)	.153272	3.45	0.001
수입6(300~500만)	.1889752	4.34	0.000
수입7(500~1,000만)	.1767991	3.94	0.000
수입8(1,000만 이상)	.0404104	0.61	0.543
사회참여수준	.0048126	1.42	0.155
사회참여다양성수준	.005161	0.16	0.875
현혈	-.0347374	-1.90	0.057
자발적 봉사	.0094841 ⁸⁾	0.60	0.546
사회기부	.023269	4.54	0.000

관찰자수: 5,533

LR chi2 (19) =209.86

결정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반신뢰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연속성을 갖는 등간 척도(Interval Measure)가 아니기 때문에 Probit Model을 실행하였다. 위의 표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profit model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Probit Model을 실행함과 동시에 Tabulation이나 간단한 T-test를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의 Probit Model에 따르면, 일반신

8) Tabulation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경험을 가진 자의 58.5%,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58.1%,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66.9%,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77.8%가, 그리고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의 66.4%가 “일반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답변하였다.

뢰수준이 남녀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교육과 가계수입에 따라서 개인들의 대인신뢰수준에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표 2>에서 읽을 수 있듯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일반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육경험자에 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일반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별 Tabulation을 실행하여 보면 대체로 교육수준과 일반대인신뢰수준이 동시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학원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일반신뢰수준은 전체 평균대인신뢰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원인이 궁금하다.

가계수입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체로 가계수입이 성장할수록 높은 대인신뢰를 가진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가계수입을 넘어서면 가계수입의 일반신뢰에 대한 한계영향력(Marginal Effects)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Tabulation을 실행하여 보면, 매달 가계수입이 50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55%가, 50~100만원인 사람들의 54.4%가, 100~150만원인 사람들의 63.8%가, 150~200만원인 사람들의 68.6%가, 200~300만원인 사람들의 70.7%가, 300~500만원인 사람들의 78.3%가, 500~1,000만원인 사람들의 78.2%가,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58.9%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답변하였다. 언급한대로, 최고 소득자들의 대인신뢰수준은 예상과는 달리 중간소득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계가치조사에서(1981, 1990, 1995년의 조사결과), 한국의 부유층들의 대인신뢰수준이 낮게 측정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직업에 따른 대인신뢰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robit Model에서 제외시킬 수밖

에 없었으며, 대신에 Tabulation을 통하여 직업별 대인신뢰수준을 확인하였다. 전문자유직(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예술가 등)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대인신뢰(77.7%)를 보여주는 반면에, 무직, 퇴직자 등이 가장 낮은 대인신뢰(39.3%)를 보여 주었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자기권한을 많이 갖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종교별, 종파별 카테고리에 따른 일반신뢰수준을 확인하여 보았다. 개인의 종교나 종파가 개인의 일반신뢰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Putnam, 2000: 65-79를 참조),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종교별, 종파별 소속이 대인신뢰수준의 차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참여수준(Civic Engagement Level)과 일반대인신뢰(Generalized Trust)수준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우선은 개인들의 시민사회개입을 총합하여 측정하고⁹⁾ 시민사회참여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위의 Probit Model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의 사회참여수준은 대인신뢰수준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위의 Probit 결과에 기초하여 가설I(한국사회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조직활동수준은 대인신뢰수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을 확증 지을 수 있는가? 아직 가설I을 확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교회나 사찰에 참여하는 수준과 일반대인신뢰수준에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9) 개인들의 시민사회참여정도는 15개 항목의 사회단체유형 별로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참여 정도 종합지수”를 만들었다.

10) 개인의사회참여수준과 일반대인신뢰수준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장수찬(2002a)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나 사찰에 나가는 사람들의 대인신뢰도는 74.3%인 반면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73.7%,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사람의 대인신뢰도는 67.2%,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인신뢰도는 65.9%로 나타났다. 왜 사회참여수준이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교회와 사찰에의 개입수준이 대인신뢰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가? 우선은 시민사회참여지수의 측정방법이 교회나 사찰 참여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측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측정오류 일 수 있다. 아니면, 교회나 사찰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신뢰에 도움이 되는 “사회화 과정”일 수 있고 일반사회참여는 타인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스톨(Stolle, 1998, 2001)이나 유스래이너(Uslaner, 2001: 2000)는 “개인의 단순한 시민사회개입정도가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회참여 다양성(Diversity)이 대인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종의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문화를 갖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만날 때 시민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대인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사회참여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참여 다양성 지수”를 만들어 보았다.¹¹⁾ 그리고 이것이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사회단체참여 다양성 역시 일반대인신뢰수준에 별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어떤 사회조직의 형태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대인신뢰수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조사된 사회단체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대인신뢰수준을 종속변수로 T-test를 실행하여 보았

11) 사회참여다양성 지수는 개인들의 단체참여 정도를 무시하고 단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다.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계모임과 같은 우리사회의 구 조직들이 내부 그룹 참여자들 사이의 두꺼운 신뢰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고, 환경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참여자, 동호회, 교육회 등의 신 조직들을 일반신뢰에 유리한 다양성을 갖는 조직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일반대인신뢰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T-test 결과는 이들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대인신뢰수준의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를 실행하였을 경우에도 신조직 참여자들과 구조직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수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조직과 구조직이 생산하는 신뢰수준의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본 조사의 설문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직형태별 특성을 완전히 측정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조직에 적극적 참여자와 신조직의 적극적 참여자가 통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혈, 자발적 봉사, 그리고 사회기부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0)는 높은 대인신뢰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참여(즉 자발적 봉사나 사회기부와 같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회기부자들이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며, 자발적 봉사자의 경우 비 봉사자와 비교하여서 약간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혈의 경우는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 기능하지 못했다. 실제로 헌혈행위는 자발적 봉사나 사회기부와는 성격이 달라서 대인신뢰를 설명하는 변수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스래이너(Uslaner, 2000)의 주장대로 사회기부와 같은 행위야 말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없을 경우에 실행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사회기부가 일반신뢰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설명변수	계수(coefficient)	T값	P> t
성	.0264897	1.154	0.248
나이	.0021828	1.203	0.229
교육수준2(중졸)	.2504832	2.851	0.004
교육수준3(고졸)	.2506242	3.050	0.002
교육수준4(전문대졸)	.2578613	2.931	0.003
교육수준5(4년대 졸)	.3287965	3.883	0.000
교육수준6(대학원졸)	.3619428	3.922	0.000
수입2 (50~100만)	-.1203812	-1.301	0.193
수입3(100~150만)	-.1104403	-1.257	0.209
수입4(150~200만)	-.1013095	-1.172	0.241
수입5(200~300만)	-.1061483	-1.233	0.218
수입6(300~500만)	-.0538986	-0.618	0.537
수입7(500~1,000만)	-.0627406	-0.652	0.515
수입8(1,000만 이상)	-.2802078	-2.333	0.020
사회참여수준	-.0020378	-0.359	0.720
사회참여다양성수준	.0088276	1.598	0.110
현혈	.0084203	0.274	0.784
자발적 봉사	.0655726	2.483	0.013
사회기부	.0436199	5.131	0.000

관찰자수: 5,789

R-squared=0.0205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신뢰 측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 측정이 등간 척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보았다(〈표 3〉을 참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회귀분석결과는 ‘일반신뢰를 종속 변수로 한 Probit Model’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probit model과 비교하여 가 계수입과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부정적 관계(negative relation)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분석의 T-value를 참조). 그러나 그 영향력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T-value

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수입이 상승함에 따라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고 부유층의 사람들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Tabulation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 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Probit Model 결과와 달리 대학원졸 업자들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도 상승하고 있다. 직업에 따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도 일반대인신뢰수준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직종사자들의 신뢰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실직자나 은퇴자들이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기록하였다.

사회참여수준과 형태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면, 개인의 사회참여수준이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교회나 사찰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교회나 사찰을 나가는 사람들의 7.9%가 낯선 사람을 신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 7.4%,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는 사람이 6.9%, 주요한 절기 때만 나가는 사람이 5.3%,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4.3% 정도만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회조직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참여하는(사회참여 다양성수준) 개인들이 낯선 사람들을 보다 신뢰하는 경향성을 약하게나마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기부를 많이 할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높게 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자발적 봉사 역시 일반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주 미약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언급한 변수들이 일반신뢰수준에 대해서보다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동일한 독립변수들이 ‘일반신뢰수준’에 대해서보다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을 설명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대인신뢰수준의 척도로서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것보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히 응답자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물어 볼 때 막연히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보다 보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은 전체인간을 불신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바른 답 고르기’ 심리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인들의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아주 다른 어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보았다. 일반대인신뢰수준과 낯선 사람신뢰수준을 단일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섯 개의 질문을 종합하여 ‘사회신뢰종합지수’를 만들어 사회신뢰를 측정하였다(부록의 사회신뢰일반사항을 참조).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신뢰수준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을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단지 독립변수들의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한층 증가하고 있고(현혈, 자발적 봉사, 그리고 사회기부의 T-value를 참조), 특히 앞의 두 모델에서 강한 설명력을 보여 주지 못하던 ‘사회참여수준’과 ‘사회참여 다양성수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참여수준과 사회참여 다양성수준의 T-value를 참조).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신뢰가 여섯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

〈표 4〉 사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설명변수	계수(coefficient)	T-value	P> t
성	-.4300528	-4.923	0.000
나이	.0046479	0.671	0.502
교육수준2(중졸)	.153086	0.460	0.645
교육수준3(고졸)	.625207	2.013	0.044
교육수준4(전문대졸)	.8524391	2.558	0.011
교육수준5(4년대 졸)	.8380672	2.617	0.009
교육수준6(대학원졸)	.8543822	2.441	0.015
수입2(50~100만)	.5962327	1.695	0.090
수입3(100~150만)	.7963125	2.387	0.017
수입4(150~200만)	.9232529	2.841	0.005
수입5(200~300만)	1.224648	3.747	0.000
수입6(300~500만)	1.37191	4.142	0.000
수입7(500~1,000만)	.7741364	2.116	0.034
수입8(1,000만 이상)	.680567	2.014	0.003
사회참여수준	.055896	2.485	0.013
사회참여다양성수준	.0982625	4.670	0.000
현혈	.1366816	1.169	0.242
자발적 봉사	.421912	4.191	0.000
사회기부	.2118302	6.544	0.000
관찰자수:	5,815		
R-squared=	0.038		

져 있어 응답자들의 신뢰수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보여지며, 둘째로는 사회참여와 사회신뢰가 보다 강한 정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배경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위의 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듯이, 앞의 모델들의 발견들이 다시 재확인 된다.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신뢰수준이 높아지기는 하나 대학원 졸업자들의 사회신뢰수준은 교육수준과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졸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신뢰가 증가하기는 하나, 수입이 가장 높은 마지막 두 그룹(5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사회신뢰수준은 수입이

100~150만원인 사람들 보다 오히려 사회신뢰수준이 낮다. 서구사회의 부유층이 그리고 식자층이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국사회 의 부유층과 식자층은 대인신뢰수준이 낮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신뢰구조와 사회조직 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되지 않은 관계로 개인들의 사회조직생활 참여가 타인에 대한 신뢰로 쉽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사회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안정된 게임 룰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교제생활을 통해 타인들에 대한 신뢰를 축척하는 ‘사회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회참여수준’과 ‘사회참여 다양성 지수’가 세 개의 다른 종속변수(‘일반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하이어와 캔들(Anheier & Kendall, 2002), 유스래이너(Uslaner, 2001), 그리고 장수찬(2002b)의 발견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둘째로, 한국인들의 신뢰구조는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수준 을 확연히 달리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내부집 단에 대한 두터운 신뢰(Thick Trust)가 풍부한 사회인 반면에 보편적 일반 시민에 대한 얇은 신뢰(Thin Trust)가 부족한 사회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중적 신뢰구조를 사회조직생활 형태와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사회조직생활을 보다 세밀하게 이론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구조의 이중성

은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데 많은 기술적인 곤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들이 실행된 ‘신뢰측정방법’을 그대로 도용하여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신뢰측정기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하게 ‘일반신뢰’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신뢰’를 다양하게 확인하여 그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의 한국사회신뢰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셋째로, 특정한 형태의 사회참여가, 즉 자발적 봉사와 사회기부, 대인신뢰를 설명한다는 스톨(Stolle, 1998)과 유스래이너(2001, 2000)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적 기부는 ‘일반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신뢰’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헌금을 측정하는 질문지에서 교회나 사찰에 대한 헌금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기부가 개인들의 교회조직생활을 다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회기부가 교회나 사찰기부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는 점으로 고려한다면 사회기부는 곧 교회나 사찰헌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나 사찰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신뢰’마저 높게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이것은 한국교회나 사찰들이 기복주의의 신앙 때문에 전체사회의 사회자본축척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나 사찰의 조직활동목적이 인간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교육하는 ‘사회화 현상’이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을 표본으로 하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서구유럽이나 북미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 일수록 높은 대인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수입에 따라 ‘일반신뢰’,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신뢰’가 높아지다가도 최고 부유층에 오면 신뢰수준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학원 졸업자들이 신뢰수준이 낮은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상층을 제외하면, 교육수준과 가계수입이 상승함에 따라 각종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한국사회가 서구사회 신뢰수준의 일반예측을 완전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다소간 일반예측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1, 1990, 199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은 일반예측을 완전히 벗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현재에 와서는 일반예측에서 완전히 벗나가기 보다는 다소 다가서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앞으로 한국민주주의가 더욱 안정화되고 공고화에 성공한다면 일반예측에 완전히 다가서리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 박통희·원숙연. 2000.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 사회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2): 101-120.
- 사공영호. 2001.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한국행정학보』 35(2): 81-96.
- 장수찬. 2002a.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_____. 2002b.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정부학 연구』 8(1): 45-68.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heier, Helmut and Jeremy Kendall. 2002.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ary Associations: Examining three approach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3) (September): 343–362.
- Bendor, Jonathan and Piotr Swistak. 2001. "The Evolution of Nor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May): 1493–1545.
- Cigler, Allan and Mark R Joslyn. 2002. "The Extensiveness of Group Membership and Social capital: The Impact on Political Tolerance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1): 7–25.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iego. 1988. "Can We Trust Trust?" in Diego Gambetta (eds.).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pp. 213–237.
- Goodin, Robert E. 2000. "Trusting Individuals versus Trusting Institutions: Generalizing the case of contract." *Rationality and Society* 12(4): 381–395.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1360–1380.
- Inglehart, Ronald.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ark E. Warren (eds.).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8–120.
- Kasse, Max.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Molm, Linda D., Nobuyuki Takahashi, and Gretchen Peterson. 2000. "Risk and Trust in Social Exchange: An experimental test of a Classical Propos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5) (March): 1396–1427.

-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neth Newton, and Paul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axton, Pamela.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Pye, Lucian W. 1999. "Civility,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The Powerful Concepts for Explaining Asi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9(4) (Spring): 763-782.
- Rahn, Wendy M. and John E. Transue. 1998. "Social Trust and Value Change: The Declin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n Youth, 1976-1995." *Political Psychology* 19(3): 545-565.
- Scholz, John T. and Mark Lubell. 1998. "Trust and Taxpaying: Testing the Heuristic Approach to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398-417.
- Stolle, Dietlind. 1998. "Bowling together, Bowling alone: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in Voluntary Associations." *Political Psychology* 19(3): 497-525.
- _____. 2001. "Getting to Trust: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families, personal experiences and group membership." in Paul Dekker and Eric M. Uslaner (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8-133.
- Sullivan, J. L. and J. E. Transue. 1999.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emocracy: A Selective review of research on political tolerance,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625-650.

- Uslaner, Eric M. 2000. "Producing and Consuming Tru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4): 569–590.
- _____. 2001.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How trust and religion shape civic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Paul Dekker and Eric M. Uslaner (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04–117
- Uslaner, Eric M. and Richard S. Conley. 2003. "Civic Engagement and Particularized Trus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their ethnic communities." *American Political Research* 31(4) (July): 331–360.
- Warren, Mark E. (ed.). 1999.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magishi, Toshio and Yamagishi Midor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6(2): 129–166.
- Zucker, Lynne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장수찬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비교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사회자본이며, 이 분야의 논문으로는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정치학회보, 2002), “한 사회의 대인 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정부학연구, 2002), “The Vicious circle of politics in changing societies: the case of Korea” (정치학회보, 2003) 등이 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jangsooc@mocwon.ac.kr이다.

부록

본 신뢰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 선생님께서는 다음 열거하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응답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가족	0.77	0.71	4.99	32.78	60.75
친척	0.75	2.51	24.60	55.91	16.22
친구	0.54	1.91	27.23	56.54	13.78
이웃	1.15	5.93	51.53	37.86	3.53
직장동료	0.87	5.84	49.46	39.68	4.15
일반사회동료	1.57	10.40	60.57	25.67	1.78
온라인 대화상대	18.87	42.53	31.77	5.91	0.91
낯선 내국인	12.77	36.61	45.05	5.04	0.83
외국인	12.38	29.91	49.83	6.82	1.06

* 괄호안의 숫자는 응답자들의 해당항목 응답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현혈에 참여하셨습니까?

- 3.2 지난해 현혈에 참여하셨다면 몇 번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 1번
- 2번
- 3번 이상

- 3.3 선생님께서는 지난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3.4 지난달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다면, 자원봉사로 몇 시간 정도를 사용하셨습니까?

- ① 30분 이하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 ④ 2~4시간 ⑤ 4~7시간 ⑥ 7시간 이상

3.5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기부금을 어느 정도 내셨습니까? (세금정산 시 자신의 기부금액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교회나 사찰에 기부한 현금도 해당됩니다).

- ① 기부하지 않았다 ② 10만원 이하 ③ 10만~50만원
- ④ 50만~100만원 ⑤ 1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3.6 선생님께서 사회에 기부하신 금액이 수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 ① 0.1% 이하 ② 0.1~0.5% ③ 0.5%~1% ④ 1~2%
- ⑤ 2~5% ⑥ 5~10% ⑦ 10% 이상

4. 선생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신뢰측정을 위한 질문)

신뢰 일반사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공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2.4	7.8	18.9	59.1	11.9
2) 도시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다	2.1	7.2	22.4	44.7	23.5
3) 부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	18.0	37.6	29.5	12.7	2.1
4) 골이 곧대로 일 처리를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	2.0	11.3	32.4	42.3	12.1

5) 경제적으로 성공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	12.1	33.6	27.95	19.6	6.5
6) 승진에 있어서 실력보다 연줄과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다	6.2	14.9	28.5	37.5	12.9

5.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사회단체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참여	가입하지 않았다	조금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종친회	61.7	31.7	6.6
2) 향우회	68.79	24.29	6.92
3) 동문회	35.97	46.82	17.21
4) 친목회(계모임 등)	20.99	44.96	34.06
5) 취미클럽, 동호회	53.33	32.10	14.57
6) 스포츠클럽	64.43	24.45	11.12
7) 학부모회, 교육회	55.78	35.04	9.18
8) 지역사회단체	77.64	18.79	3.57
9) 청년회	85.33	11.48	3.18
10) 전문가협회, 학회	81.29	14.44	4.28
11) 자원봉사단체	71.39	23.24	5.38
12) 노동조합, 직업관련조합 (예: 농민회)	78.2	17.5	4.28
13) 사회복지단체	79.15	17.37	3.48
14) 환경단체	84.51	13.23	2.26
15) 여성단체	87.87	9.64	2.49

*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자들의 비중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6. 선생님께서는 교회 혹은 사찰에 예배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주 나가십니까?

